

광주·필리핀 작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역의 독립큐레이터 그룹 'OverLab 오버랩'은 지난 2014년부터 필리핀 바콜로드 작가들과 교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중에서도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7회째를 맞는 광주-바콜로드 공동창작 'Cycle 프로젝트'는 공동워크숍, 레지던시 형태로 발전해 각국에서 진행했으며 2020년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공동창작으로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 공동창작 발표회 'Cycle007-Are We Linked-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가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남구 오버랩(구성로 76번 안길 5-4)에서 열린다. 작가들이 참여하는 클로징 파티와 아티스트 토크는 25일 오후 3시 개최된다.

이번 온라인 공동창작에는 김도경, 서지수(이상 한국), 준준 문텔리바노, 조쉬 세라핀(이상 바콜로드)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해 경계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코로나 이후 주목받는 로컬리티를 통한 공간의 변화에 주목했다.

서울, 광주, 바콜로드, 브뤼셀 등 각기 다른 도시에 정주하며 지역을 떠나며 활동하는 작가들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각자의 주제 의식을 표현하는 1차 협업을 진행했다. 이후 작업물을 교환, 각자의 표현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의미를 더하는 공동창작을 진행했다.

박유영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개개인의 연결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빠르게



오는 25일까지 광주 대안공간 오버랩에서 열리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 전 모습. <오버랩 제공>

큐레이터 그룹 '오버랩' 김도경 작가 등 참여 온라인 공동창작전 25일까지 오프라인 전시...클로징 파티·아티스트 토크도 진행

변화하고 움직이는 디지털 글로벌 환경 속 나 자신의 정체성을 되짚어보는 기획"이라며 "현대 사회에 던져진 무한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연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다시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버랩의 Cycle 프로젝트는 최근 아르코 미술관 주제기획전에 초청을 받아 그간의 활동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카이빙 작업과 올해 진행된 공동창작 작품을 서울에서 함께 전시한다. 한필 예술가가 협업한 공동창작 작품은 오는 25일까지 오버랩(광주)과 내년 1월까지 아르코미술관(서울) '일시적 개입'전, 오렌지프로젝트(바콜로드, 필리핀) 'Majica Elemental'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야금·해금 연주에 더해진 노래와 인문학

'가람휘락' 작은 음악회, 24일 남구 스페이스 모모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노래로써 현재와 매듭짓는 예술인 모임 '가람휘락'이 네 번째 작은 음악회를 24일 오후 7시 30분 남구 스페이스 모모(봉선1로 62번길 8)에서 연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해금 연주에 노래를 더하는 공연과 인문학 강의로 구성됐다.

먼저 이우리 가야금병창 연주자가 '태평한 몸금포'를 선보이며 단가 '추억'과 '홀로 아리랑'을 피아노 선율과 함께 가야금 연주로 들려준다. 피아노 연주는 피아니스트 박경빈이 맡는다.

이정숙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은 '침향무'를 송대현의 장구장단과 함께 펼친다. 박남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연주자는 피아니스트 김정은의 반주에 맞춰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선보인다. 이어 가야금과 해금2중주로 들려주는 '아리랑&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함께 연주한다.

다음으로 빈중영 광주시립창극단원이 대금으로 가수 이선희의 '인연'과 동요 '엄마야 누나야'를 연주하고 여기에 바리톤 이형기가 목직향 음성을 더해 노래한다.



김광복

마지막으로 테너 송태왕이 '가람휘락'의 창작곡 '아 무등산'을 부르며 마무리한다. '아 무등산'은 광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공감하는 '증언자'인 무등산의 아픔과 울분을 표현한 곡이다.

이날 인문학 강사로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김광복(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이사장이 함께한다. 김 이사장은 '민중진혼곡'을 주제로 피리 가락에 간직해온 광주의 삶과 정신에 대해 얘기한다.

한편 가람휘락의 작은음악회는 매월 두번째, 네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

농부는 어린 아들 동이를 찾을 수 있을까?

조오복 시인, 그림책 '댕그랑 댕그랑 동어' 펴내

절에 가면 커다란 범종 외에도 처마 밑에 달린 물고기 모양의 작은 종을 볼 수 있다. 처마의 종은 바람이 불면 댕그랑 댕그랑 맑은 소리를 낸다. 작은 물고기 모양의 조형물을 동어라고 한다.

조오복 시인이 동어를 모티브로 그림책 '댕그랑 댕그랑 동어' (라운누리)를 펴냈다.

작품은 빛고를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을씨가 착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농부는 어린 아들 동이를 위해 새 아내를 맞이한다.

그러나 새 아내는 동이를 강가 빨래터에 버린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호랑이가 물어갔다고 거짓말을 한다. 농부는 동이를 찾아 사흘 밤낮을 헤맨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동이를 찾을 수 없다. 과연 농부는 동이를 찾을 수 있을까?



책 속 그림은 중앙대 시각디자인학과 석사를 수료하고 광주여대에서 색채학 강의를 하는 김지영 씨가 그렸다. 따뜻하면서도 환상적인 그림을 보는 맛도 쏠쏠하다.

한편 조오복 시인은 2019년 아동문예에 동시 '동물원에서'로 신인상을 받으며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동시집으로 '행복한 튀밥', '페인팅하는 담쟁이', '웃는 집시'를, 그림책으로 '은향있고 바람개비', '깨미와 꼬불이'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포항시 한호공원 전망대에 가면 '공중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 (Space Walk)에서다. 총 4095㎡ 부지에 가로 60m, 세로 57m, 높이 25m, 길이 333m의 철구조물 트랙을 따라 걷다 보면 높이동산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짜릿하다.

그래서일까.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장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사실, 스페이스 워크는 멀리서 보면 하나의

결, 오는 2024년 4월 '제2의 스페이스 워크'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외곽인 바르베르그 공원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출신의 설치작가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이 제작한 푸른 색상의 '바르베르그의 거인'이다. 한적한 야외 공원에서 하늘을 바라 보고 누워 있는 19m 길이의 남자 전신상과 3m 높이의 여자 흉상은 미술관을 뚫고 옮겨 놓은 듯하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이를 거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이다. 유치원에서

'바르베르그 거인'과 폴리

거대한 설치 작품이다. 철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곡선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포스코가 사회공헌 일환으로 200억 원을 기부해 독일 출신의 건축가이자 설치미술가인 하이케 무터·울리히 겐츠 부부를 선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단순히 장식용이 아닌, 시민들의 삶속으로 들어가는 '작품'을 건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무터 부부는 설계에 앞서 직접 포항을 3차례 방문해 조형물이 들어설 장소와 주변과의 경관 등을 반영한 8개의 디자인을 제안했다. 지금의 스페이스 워크는 이들 디자인 가운데 국내 건축·미술전문가, 포항시, 포스코, 시민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공공미술의 모범을 제시한 사례로 알려지면서 포항에는 광양 등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벤치마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지난달 광양시 소재 구봉산에서 지역의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단체 견학을 온 어린이들은 거인의 배 위에서 뛰어다니고, 젊은 연인들은 여자 흉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책을 읽거나 기타를 연주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낸다. 세계적인 거장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지만 이들에게는 그저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터나 벤치다.

광주에도 공공장소와 예술을 접목한 조형물이 많다. 지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한 광주폴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십 여 원을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은 초라하다. 올해 5차 폴리카까지 31개의 폴리카 광주 전역에 설치돼 있지만 상당수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는 광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색깔있는' 문화자산이다. 폴리카 광주의 브랜드로 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통'이 먼저다. 폴리카 시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도록 말이다.

(문화·여행 담당국장, 선임기자)

'아바타: 물의 길' 12월14일 한국서 세계 첫 개봉

전편 '아바타' 개봉 이후 13년만... 12월 9일 감독·배우 내한

2009년 최고 흥행기록을 쓴 영화 '아바타'의 속편 '아바타: 물의 길' (이하 '아바타 2')이 12월 14일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봉한다.

22일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에 따르면 '아바타 2'는 내달 14일 한국 관객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난다. 전편 개봉 이후 13년 만이다.

'아바타 2'는 1편에서 15년이 지난 판도라 행성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인간에서 나비가 된 '제이크 설리' (샘 워싱턴 분)와 나비족 네이티리(조

셀라나)가 이룬 가족이 무자비한 위협 속에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이들이 견뎌내야 할 상처를 그린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전편에 이어 메가폰을 잡았고, 존 랜도가 프로듀서를 맡았다.

캐머런 감독 등 '아바타 2' 주역들은 개봉을 앞둔 다음달 9일 한국을 찾아 영화 팬들을 직접 만난다. 방한에는 캐머런 감독과 랜도 프로듀서를 비롯, 샘 워싱턴과 조 셀라나, 시거니 위버, 스티브 랭 등이 함께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